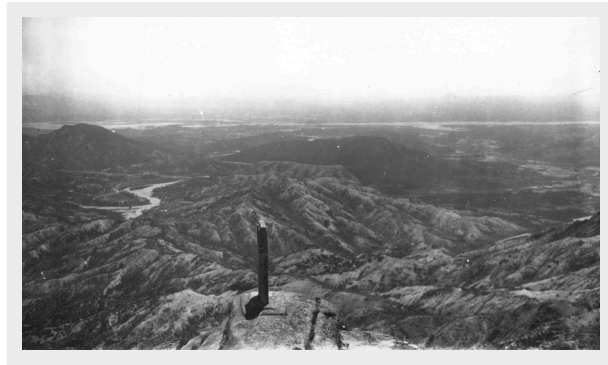


진흥왕[眞興王]

강대국 신라를 만든 전륜성왕(轉輪聖王)

534년(법흥왕 21) ~ 576년(진흥왕 37)



북한산 진흥왕 순수비
/ 국립중앙박물관 /

1 개요

진흥왕(眞興王, 534~576)은 신라 제24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40년~579년이다. 그는 전왕 법흥왕(法興王, 재위 514~540)이 이룩한 중앙집권국가로의 발전을 바탕으로, 국력을 신장시키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, 신라를 고구려, 백제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삼국의 하나로 우뚝 세웠다. 그가 정복한 영토를 순시하며 세운 순수비(巡狩碑)는 그의 업적을 잘 보여준다. 또한 자신이 불교의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(轉輪聖王)임을 표방하는 등 불교를 크게 진작시키고 불교 이념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다.

2 가계와 즉위

진흥왕은 본명이 심맥부(深麥夫) 혹은 삼맥종(多麥宗)으로, 534년(법흥왕 21) 법흥왕(法興王, 재위 514~540)의 동생 입종갈문왕(立宗葛文王)과 법흥왕의 딸 지소부인 김씨(只召夫人 金氏) 사이에서 태어났다. [관련사료](#) [관련사료](#) 따라서 진흥왕은 전왕 법흥왕의 조카이면서 외손자였다. 형제로는 숙흥종(肅訢宗)과 만호부인 김씨(萬呼夫人 金氏)가 있다. 왕비는 각간(角干) 영실(英失)의 딸인 사도부인 박씨(思道夫人 朴氏)이고, 둘 사이 자식으로 동륜태자(銅輪太子, ?~572)와 진지왕(眞智王, 재위 576~579)이 있다.

540년 7월 법흥왕이 사망하자 신라 제24대왕으로 즉위하였다. 아마 법흥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이은 것으로 보인다. 즉위할 당시 진흥왕은 7살의 어린 나이였기에, 태후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다. [관련사료](#) 『삼국유사(三國遺事)』에는 즉위할 때 나이가 15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, [관련사료](#)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태후가 섭정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일반적으로는 『삼국사기』의 기록을 따라 534년에 출생하여 7살에 즉위하였다고 보고 있다.

3 국사(國史)를 편찬하다

진흥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는데, 그녀와 함께 541년(진흥왕 2)에 병부령(兵部令)의 지위에 올라 군사권을 장악한 이사부(異斯夫)가 정국을 주도했던 것으